

스포츠선수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경험 탐색 : 프로·실업팀 축구선수를 중심으로

Exploration on Sports Athletes' Ethical Conflict Experiences : Referring to Professional/Business Team Soccer Players

김아름(광진중학교 교사) · 임다연*(극동대학교 교수)

Arum Kim Gwangjin Middle School · Dayoun Lim* Far East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축구선수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축구선수들은 이러한 윤리적 갈등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축구선수들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여 현재 활동중인 남자 프로축구선수 5인, 여자 실업축구선수 5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FGI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선수가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경험은 1) 지도자의 부당한 요구상황의 갈등경험, 2) 선배의 부당한 요구상황의 갈등경험, 3) 공동체와 개인간의 갈등경험, 4) 경기운영에서의 갈등경험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와 같은 갈등상황에 선수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한 결과, 1)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 대처, 2) 의도치 않은 온정주의적 대처, 3)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적 대처, 4) 결과를 우선시하는 결과론적 대처로 나타났다. 셋째, 축구선수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지도자와 선수간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2) 선후배간 관계 개선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3) 윤리적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 4) 프로축구와 실업축구의 특성을 이해하는 맞춤형 스포츠윤리교육 및 윤리적 갈등상황 해결 훈련 강화로 제시되었다.

주제어 : 축구선수, 실업팀, 프로팀, 윤리적 갈등, 스포츠윤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ethical conflict situations soccer players experience, analyze how soccer players cope with these ethical conflict situations, and finally to suggest ways to improve soccer players' ability to cope with ethical conflict situations. As a research method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selected, and five male professional soccer players and five female unemployment soccer player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thical conflict experiences faced by soccer players were 1) conflict experiences of unfair demand situations by leaders, 2) conflict experiences of unfair demand situations by seniors, 3) conflict experiences between communities and individuals, and 4) conflict experience in game management. Second, as a result of grasping how the players cope with the above conflict situation, it was found that 1) passive response according to instructions, 2) unintended recognitionist response, 3) communistic response that prioritizes the team over individuals, and 4) consequential response. Third, the measures to improve soccer players' ability to cope with ethical conflicts were 1) to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capabilities between leaders and players; 2) to develop mentoring programs to improve relationships; 4) to strengthen customized sports ethics education and ethical conflict resolution training.

Key words : Soccer player, business team, professional team, ethical conflict, decision making, sports ethics

* dylim84@kdu.ac.kr

I. 서론

2022년 4월, 한국축구연맹전이 열렸다. A고교와 B고교의 경기로 중계방송이 진행되었지만, 해당 방송에서는 이상한 장면이 장시간 포착되었다(이재호, 2022.04.25). 1대1로 맞서던 전반 32분경 약 8분 가량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누구도 수비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심판 역시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공을 잡고 있는 골키퍼만 한참을 서있다 왔다갔다만 하였고 어떤 선수도 골키퍼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해당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는 “이런 부분이 신경전으로 보여지는데요. 양 팀의 자존심 대결이 이어진다”며 “경기가 중단된 상황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신경전입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중계 영상을 보면 코치진으로 보이는 이들이 해당 장면에서 “오면 잡아”, “천천히 해”와 같은 말을 선수들에게 반복하고, “기다려”라는 말도 지속적으로 한다(이재호, 2022.04.25). 이에 선수들은 코치진의 말에 따라 경기장 안에서 어떠한 공격도, 수비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시간만 끌었다. 심지어 일부 선수들은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 경기장 한켠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그러나 전광판 시계는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원치 않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일까? 이와 비슷한 상황은 프로축구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11월,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한국과 이라크는 무승부의 결과를 받았는데, 특히 중동 특유의 침대 축구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캡틴 선수는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라크의 시간 끌기에 불만을 표했다(김동욱, 2021.11.17). 이에 상대팀 감독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우리나라 선수는 다시 한번 “한국을 지도했던 감독이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했는데, 나랑 다른 경기를 본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축구 경기상황에서는 전략적인 행위 또는 신경전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선수들은 스포츠 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윤리적 갈등이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이 두 가지 윤리원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발생한다(Kadushin et al., 2001). 즉, 스포츠 선수에게 윤리적 갈등 상황은 결정하기 어려운 윤리적 문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개인을 넘어 팀, 해당 종목의 관련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척 중요하다. 윤리적 갈등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규범이 다원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갈등은 개인으로부터 개인 간의 가치관과 집단 간의 가치관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도덕 이론과 원칙의 차이인 윤리적 충돌로 인해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조성민, 2007).

스포츠 현장에서는 윤리적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때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Reamer, 1993).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판단은 스포츠선수들의 몫이며 선수들의 대처에 따라 윤리적 갈등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남게될 수가 있다(홍수

정, 2015). 따라서 스포츠선수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의 복잡성에 초점을 두며, 모든 상황적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한다(홍수정, 2015).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갈등 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윤리적 갈등 유형으로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적 윤리적 딜레마가 있으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개인 내부적 딜레마가 있다(김문옥, 2017). 이러한 개인 내부적 갈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일어나며 스포츠선수들은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허라금, 2001).

그러나 스포츠선수는 필수 교육을 통해 스포츠윤리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는 윤리이론이나 원칙보다는 스포츠 상황에서의 환경적 요인, 관계적 특성, 개인적 양심을 우선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윤리적 갈등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스포츠선수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윤리이론이나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스포츠문화 속에서 권장되는 규범, 성과가 기반이 되는 결과론적 윤리관, 조직문화의 관련성 등을 우선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임다연, 박성주, 2021). 하지만 스포츠선수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스포츠의 가치는 더욱 돋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선수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스포츠선수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육을 통해 선수들에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선수들이 실제 상황에서 유사한 상황을 직면하였을 때,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축구선수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축구선수들은 이러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축구선수들의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포츠선수의 도덕적 자율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의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술과 행동 능력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윤리 교육 및 실행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첫째, 축구선수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은 무엇인가? 둘째, 축구선수들은 윤리적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셋째, 축구선수들의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연구 과정 측면에서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 실생활 의 맥락 안에서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적절할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박경수, 장혜경, 2013).

축구선수의 경기상황에서 윤리적 갈등 상황은 스포츠 상황이라는 특수한 맥락과 선수의 일상생활이라는 맥락, 스포츠의 가치실현이라는 맥락 안에 자리 잡게 되므로,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윤리적 갈등 상황을 연구하기에는 사례연구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적 사례연구는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므로(허미화, 1997), 현상인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례를 총체적이고 면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비확률적 표집에 따른 유목적적 표집법을 활용하여 최종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0명으로 현재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 중인 남성 선수 5명, 현재 실업 축구선수로 활동 중인 여성 선수 5명을 선정하였다. 경기에서의 충분한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프로, 실업 경력 5년 이상의 선수로 제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역 선수로서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 소속팀과 성명을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번	성명 (가명)	성별	연령	선수경력	실업·프로 경력	팀(가명)
1	A선수	여	34세	22년	13년	K실업팀
2	B선수	여	28세	18년	9년	L실업팀
3	C선수	여	34세	19년	13년	M실업팀
4	D선수	여	33세	19년	13년	N실업팀
5	E선수	여	34세	20년	14년	O실업팀
6	F선수	남	29세	16년	6년	P프로팀
7	G선수	남	28세	15년	5년	Q프로팀
8	H선수	남	30세	19년	7년	R프로팀
9	I선수	남	28세	14년	5년	S프로팀
10	J선수	남	32세	20년	8년	T프로팀

2.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각 질문지는 축구선수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경험, 윤리적 갈등의 원인, 윤리적 갈등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축구선수의 윤리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축구선수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축구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윤리적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윤리적으로 갈등하거나 양심에 가책을 느꼈던 구체적인 사례를 말

씀하여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윤리적으로 갈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그 판단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렇게 대처한 이유 또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윤리적 갈등 상황을 대처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서 삼각검증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즉, 프로·실업 축구 경기 참여관찰, 포커스그룹인터뷰(남성프로축구선수, 여성실업축구선수), 개별인터뷰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직접적인 자료수집은 2022년 1월~5월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분석과 논의가 지속되었다. 포커스 그룹인터뷰는 시즌 중인 선수들의 일정과 코로나 상황의 안전을 고려하여 ZOOM으로 진행하였고 개별인터뷰는 각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장소, 예컨대 훈련장,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과정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2)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인터뷰 자료의 녹취록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는 줄 단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선수들의 훈련일지 및 인터뷰 등에 나타난 윤리적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별 이해의 축진을 위해 인터뷰 내용을 가능한 인용에 충실히 보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수행한 자료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전사한 뒤, 전사 내용을 수차례 읽으며 개개인의 면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 개인별 면담 내용에서 동일한 내용 또는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내는 코딩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셋째, 코딩화 작업을 통해 생성된 여러개의 범주들을 묶어 잠재적인 주제군들을 추출하였다. 넷째, 추출된 잠재적 주제군들을 다시 한번 분석 및 정리하여 최종 주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주제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면담 내용을 골라 각각의 주제들에 포함하였다.

3) 자료의 윤리성 및 진실성

이 연구는 프로·실업 축구선수들이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를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 전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텍스트로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참여에 동의한 연구참여자만 심층면담과 FGI를 진행하였다. 또한 개별 면담 진행 시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FGI진행 시 ZOOM 녹화에 대해 선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허락하에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연구참여자들에게 제공유하여 참여자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지, 올바른 해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연구참여자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질적연구방법론 전문가 1명과 스포츠윤리학 전공 교수 1명에게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논의하는 동료 간 협의를 진행하여 검토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축구선수의 윤리적 갈등 경험 사례

축구선수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연구참여자 모두가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선수는 해당 사례가 윤리적 갈등 상황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은 스포츠의 특수한 구조, 즉 복잡한 관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지도자의 부당한 요구상황의 갈등 경험, 2) 선배의 부당한 요구상황의 갈등 경험, 3) 공동체와 개인간의 갈등 경험, 4) 경기운영에서의 갈등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지도자의 부당한 요구상황의 윤리적 갈등 경험

스포츠지도자란, 단순히 스포츠 기술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험 속에서 운동기술 및 전술을 가르치는 전달자의 역할, 훈련과 시합을 계획하고 팀의 운영 및 성적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 선수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교육자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의 요소가 강한 스포츠에서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선수들에게 갈등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팀이 이기고 있을 때는 감독님이 최대한 시간을 끌라고 지시해요, 안그래도 관중도 없고, 인기도 없는데.. 그래서 정작 보는 팬들은 더 아유를 보내기도 하는데... 선수로서는 감독님이 시키기도 하고, 시간을 끌어서라도 이기는게 맞으니까.” (D선수, N실업팀)

“어렸을 때부터, 경기중에 제 실수를 솔직히 말하면 혼났어요. 예를 들어 손에 공이 닿았는데 심판이 간가민가 할 때, 핸들링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왜 말하냐!’ 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릴 때만 그런게 아니라 성인이 되도 똑같아요.” (A선수, K실업팀)

“스로인 상황에서 게임 중에 제 발이 맞고 나갔어도 애매한 상황이면 나 안 맞았다고 하거나, 제 발이 맞은 걸 알면서도 공을 들고 우리 볼 인척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몸에 베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안하면 코치님한테 욕먹으니까.” (H선수, R프로팀)

“근데 대부분의 선수가 파울을 범하더라도 일단은 아니라고 어필을 하지 않나? 자진해서 심판에게 먼저 말하는 상황은 없지. 그럼 미쳤다는 소리 들어. 미쳤어? 제정신이야? 하면서.” (A선수, K실업팀)

경기상황에서 선수들이 느끼기에 부당한 것들을 지도자는 아무렇지 않게 지시하고 있었고, 장기간 익숙해지며 선수들마저 당연시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활동에서 선수는 지도자와의 교감을 통해 신념, 규범, 가치, 태도 등을 내면화 시킨다(임병장, 2006).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술을 지도자는 선수에게 지도하고 있었으며, 선수는 이를 통해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우리 팀은 거의 대부분 감독님과 코치님의 의견을 따르는데 그래도 우리 의견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 축구는 답이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우리한테 이해시키고 따르게 해. 전술적인 부분이나 훈련도 감독님과 코치님이 정한 결정에 우리가 따르게 되지. 답은 없지만 감독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결과가 안좋지? 그럼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했냐는 거야. 그러면 진짜 어이가 없어.” (E선수, O실업팀)

현장에서, 특히 경기상황이나 훈련상황에서 선수들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고, 지도자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수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지도자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선수들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책임전가’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에게 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책임전가 의식은 좋지 못한 결과 또는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도자의 판단을 예로 들면, 팀의 전략을 위한 비매너적 행동, 승리를 위한 무리한 전략 등 선수의 직접적인 행동을 지시하게 된다. 지도자가 자신의 판단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선수의 행동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선수에게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다. 선수 또한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고 지도자의 지시였기에 지도자의 선택과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선수와 지도자가 행위에 대한 충분한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 수 있다.

축구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전술 능력, 분석력, 코칭 능력, 가치관 등도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명재용, 홍성택, 2020). 긴 경기 시간과 넓은 경기장, 22명의 선수가 플레이하는 축구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전술, 상대 팀에 대한 대비책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지도자의 전문성은 선수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도록 이끌지만 팀을 위한 결정에 있어서 지도자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경기에 앞서 선수의 기용과 선수 구성에 대한 결정권은 지도자에게 있다. 따라서 선수들에게 지도자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선수의 의사결정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수들은 지도자의 말을 반드시 따르게 되며, 선수가 원치 않는 방향일지라도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플레

이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김아름, 2020). 이러한 인식은 선수들이 맞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인 판단과 실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선배의 부당한 요구상황의 윤리적 갈등 경험

축구는 단체 종목인 만큼 선수 간 관계가 끈끈하며, 함께 있는 시간이 가족보다도 훨씬 많다. 한 팀으로서 하나의 목표를 가진 완성된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팀 내의 환경과 선수들 간의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김범준, 2022). 그러나 반대로 함께하는 시간이 긴 만큼 선수 간의 갈등 상황 발생도 늘어나며, 이는 나아가 윤리적 갈등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사실 지도자도 힘든데, 선수끼리 관계가 안 좋을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선배가 까리면 까야 하고.. 한 팀이니까 그런 걸 또 거부하면 팀 분위기를 흐리니까.”(B선수, L실업팀)

“선배가 마음에 안 드는 후배가 있으면, 직접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저한테 네가 잡아라. 네 선에서 얘기 좀 해라. 라고 시켜요. 그러면 저는 하기 싫은데, 선배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후배한테 군기를 잡기도 하고 그래요.”(E선수, O실업팀)

“아무래도 경기하다 보면 격해져서 억울한 판정을 받으면 항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선배가 항의를 하러 가면 저도 같이 가서 해야 해요. 사실 그런 어필을 하고 싶지 않거나 심판의 판정이 옳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면 진짜 하기 싫어요.”(I선수, S프로팀)

선수로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대상은 감독, 코치를 제외 하곤 선배 선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동료 선수가 뒤를 이었다(오웅수, 2003). 갈등(conflict)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개인들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목표가 다르거나, 아니면 그 설정된 목표에 대한 견해가 같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부조화를 느끼는 상태로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태는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위장되거나 혹은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오웅수, 문선호, 2008).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선수와 선수 간의 갈등 상황도 적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한 팀이기 때문에, 팀 스포츠로서 팀워크의 중요성 때문에 팀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겠다는 이유로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의 분위기를 원활하게 유지 시키고,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선 의견충돌이 발생할 때 후배가 선배의 말을 따르는 게 옳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공동체와 개인 간의 윤리적 갈등 경험

축구는 11명의 선수로 이루어진 두 팀이 90분이라는 경기 시간 동안 상대 팀 골대에 골을 넣는 구기 스포츠이다. 비교적 많은 선수가 참여하고 긴 경기 시간을 운영하는 특성을 가지며 한 팀에 소속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하는 11명 이상으로 최대 30여 명까지 이루어진다. 한 팀에 소속된 다수의 선수와 경기에 참여하는 많은

인원, 긴 경기 시간, 넓은 경기장 등은 선수들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며, 경기 중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판단력을 요구한다. 경기 중 선수들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11명의 선수와 지도자까지 모두 같은 뜻으로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선수들은 팀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는 종목 특성 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22명의 우리팀 선수와 상대 팀 선수들, 4명의 심판, 동그런 공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선수가 예측하고 계획한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주장이다 보니.. 팀에서 원하는 전술 플레이가 있고 밖에서(코치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밖에서 보는 지도자랑 안에서 뛰는 선수들이 같은 걸 요구하는데 특정 선수가 그걸 못 해준다? 그럼 나는 처음엔 계속 그 선수를 독려하고 이끌어 갈려고 하는데 가는 끝까지 개인 플레이를 해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팀을 이끌어 가야하고, 선수 한 명만 이해하고 맞춰줄 수 없으니까 경기 중에 소리 지르고 막 하죠. 팀을 위해서, 어떻게든 끌고 가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나쁜 감정이 쌓이기도 해요.”(I선수, S프로팀)

“아무래도 집단 의식이 있는 거 같아요. 보는 시선도 개인 대 개인 보다는 팀 대 팀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엔 친하다가도 상대팀이면...같이 신경전하고 저 선수 진짜 괜찮다 싶어도 저 팀이 별로라는 이미지면 같이 별로예요.”(C선수, M실업팀)

김아름(2020)은 실제로 선수들은 11명의 선수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많은 선수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만큼 훈련상황과 생활면에서 끊임없는 의사소통과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팀을 위한 개인의 희생으로 이어져 개인의 부상이나 속임수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4) 경기 운영에서의 윤리적 갈등 경험

임다연, 박성주(2021)에 따르면 스포츠선수는 일반인과는 다른 윤리관을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상황이 아닌 일반 윤리적 상황에서는 대다수 원칙을 우선시하는 의무론적 윤리관을 나타냈으나, 스포츠 상황에서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는 결과론적 윤리관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이중적 의식구조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또한 이와 비슷한 성향을 드러냈다.

“경기 도중에 볼이 사이드 라인으로 나가게 되면 선심과 주심이 볼의 소유를 밝히는데 난 일단 무조건 우리 볼이라고 하지. 우리 볼이라고 해서 우리 볼로 주면 경기에 유리하니까. 이게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심판이 잘 못 보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

서 판정을 내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 내가 우리 불이라고 어필을 하면 심판도 내 말 들어줄 때도 있어. 사실 우리 불이 아닌 걸 알아도 일단은 우리 불이라고 하는 거지. 이 건 팀을 위한 거야. 반대로 우리 불이 아닌데 심판이 우리 불이라고 선언하면 심판 판정은 따라야하니까 그냥 우리 불로 진행하는 거지.”(B선수, L실업팀)

“경기 도중에 페널티 박스는 위험지역이니까 뛰다가 손에 맞더라도 일단은 핸들이 아니라고 우겨요. 어필을 하는 것도 경고를 받지 않는 수준이 있거든요. 일단 어필을 해야죠. 그러다 심판이 번복하면 좋은 거고, 그래도 심판이 판정을 고수하면 우리도 그냥 수긍하는 거죠. 뭐.”(G선수, Q프로팀)

우리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스포츠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선수들에게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선택적 상황에서 선수들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판단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기에서 승리라는 결과 또는 승리를 위해 유리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고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수들은 승리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적 갈등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경기상황에서만큼은 승리라는 가치가 가장 우위에 있는 선수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스포츠선수의 의식은 규칙과 공정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스포츠에 따라 원칙의 중요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승리추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하고 있기에 스포츠 상황에서는 직관적으로 결과지향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임다연, 박성주(2021)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2. 축구선수의 윤리적 갈등상황 대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축구선수는 현장에서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한 결과, 1)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 대처, 2) 소신에 따른 적극적 대처, 3) 결과론적 대처, 4) 의무론적 대처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 대처

축구선수들은 자신이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수동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력이 많은 현역 프로·실업축구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에 따른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수동적 대처가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특히 지도자의 지시에는 대부분의 선수가 수동적 대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평소에도 지도자의 의견에 따르는데, 특히나 경기관련해선 100% 지도자의 의견이에요. 그게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때론 아 이런 진짜 아닌데 싫어도 지도자의 의견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죠.

팀 분위기가 그게 당연시 되어있기도 하고.”(B선수, L실업팀)

“선수에게 의사결정권은 없어요, 주로 코치에 의해 그냥 따르는 거지. 그리고 현장에서 개인의 의견이 중시되진 않아요. 개인의 의견을 묻는 일도 거의 없구요. 그건 지도자에 대한 월권 행위지.”(A선수, K실업팀)

“우리가 성인이어서 그런지, 우리 의견을 자주 묻긴 하세요. 근데 묻긴 묻는데.. 결국에는 지도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한들 뭐하나 싶은 생각을 하긴 합니다.”(D선수, N실업팀)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지도자의 의견을 따르고 있고, 개인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지도자에 대한 월권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사결정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합리성을 발휘하는 것이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관건인데, 축구선수들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도자의 권한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선택의 어려움 여부는 의사결정자의 합리성 정도에 따라 나누어진다(소영진, 2015).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는 선택의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지만,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는 선택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즉 선수들은 현장에서 지도자들에 의한 윤리적 갈등 상황을 겪고 있으나 올바른 대처를 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의도치 않은 온정주의적 대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대처는 소신에 따른 적극적 대처가 아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여 반드시 바람직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생활이다 보니 3자의 인간질이 많은 거 같아.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는 갈등과 트러블이 항상 생기는 거 같아. 그럴 땐 오히려 내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릴 때보다 내 팀에 동료이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면 내가 막 나서게 되는 것 같아.”(C선수, M실업팀)

“싸움이나 다툼이 있어도 당사자 둘이 해결해야 하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니까 이게 단순히 둘만의 문제로 안 끝나는거지.”(J선수, T프로팀)

“나서주는거죠. 그냥 동료를 위해서? 그게 의리고, 그게 팀이니까. 차라리 제 일이면 가만있을 것 같아요. 전 상관없으니까.”(D선수, N프로팀)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반면, 타인이 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관대하였으며, 타인보다는 자신의 희생을 더 쉽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단체 종목의 특징으로 보여졌다.

3)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적 대처

축구는 또 하나의 사회이며, 축구를 통해 사회성의 본질을 배울 수 있다(Simon, 2010).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하나의 목표를 지닌 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의존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러한 협력은 팀 구성원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아름, 2020). 이처럼 축구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만큼 축구선수는 윤리적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에 안 들어도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거죠, 제가 주장이니까. 쓴소리하고. 나서야할 때 나서고. 팀을 위해서 항의도 하고. 항의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근데 해야죠, 이런 팀운동이니까.”(F선수, P프로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게 당연히 있지. 우리는 개인주의적이지는 않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단체생활과 합숙, 팀 훈련 등을 하면서 그런 거 같아.”(B선수, L실업팀)

축구가 지닌 도덕적 가치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스포츠에서 팀은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모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스포츠 경기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김현수, 김동규, 2012). 축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말하며 구성원들에게는 집단에 대한 애착, 헌신이 요구된다(서상철, 2008). Reich(2010)은 공동의 목표와 구성원들의 이해, 상호 의존성과 의사소통 등이 공동체 의식을 규정짓는 요인으로 본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축구 선수들의 윤리적 선택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때론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는 선택을 야기하기도 한다.

4) 결과를 우선시하는 결과론적 대처

축구선수의 경기 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모두가 “승리”라고 외쳤다. 이는 프로, 실업팀 선수라는 특수한 직업으로서 경기의 결과가 자신의 연봉을 좌우하고, 선수생활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승리를 가장 큰 목표로 추구할 수 있지만, 엘리트 스포츠의 성립 요소인 경쟁에서 본질적으로 승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어릴 때부터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스포츠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원칙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론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축구 경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기고 싶고 승부욕이 생기고,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아무리 경기전에 많은 원칙을 세우더라도 경기 도중에는 원칙을 지키는게 힘든 상황이 더 많아요.”(C선수, M실업팀)

“축구라는게 경기 상황이나 선수들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경기 흐름이나 진행상황에 따라서 패스 대신 드리블을 하면서 빌드업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팀이 리드하는 상황이면 팀의 정비를 위해 볼의 소유 시간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니까.”(D선수, N실업팀)

“일단 출전의 목적은 이기자.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의 승리가 제일 큰 목적이예요. 팀의 승리보다 다르게 우선시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H선수, R프로팀)

“난 공격수다 보니 경기에서 골을 넣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팀의 승리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 내가 골을 넣어서 승리하면 물론 좋지만,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팀의 승리가 최우선인 거 같아.”(E선수, O실업팀)

이처럼 축구선수는 경기운영에서의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는 결과론적 대처를 하는 성향을 보였다. 특히 오늘날 스포츠는 승리와 업적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승리지상주의가 팽배해졌음을 고려할 때, 스포츠 선수들의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상적이다(임다연, 박성주, 2021). 이러한 강한 목표지향성은 결과론적 윤리관을 형성하고, 이는 편향된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동을 합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3. 축구선수의 윤리적 갈등 상황 대처역량 증진 방안

축구선수의 윤리적 갈등 상황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와 선수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축구의 경우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로 나타났다으며, 선수는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수의 의사결정 권한이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선수 스스로 능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후배간 관계 개선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축구 종목의 특성상 다수의 선수가 동고동락하며 계속해서 부딪히게 된다. 그만큼 갈등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윤리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선배는 후배를 아랫사람으로 인식하고, 후배는 선배를 위사람으로 인식하는 과거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축구선수가 다른 종목과 비교하여 스포츠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실천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갈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자 실업축구의 경우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의 개수가 적고, 있는 팀마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소신껏 행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런

면에서 선수들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포츠윤리강령은 비록 구체적인 지침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마련하고 선수들이 익숙해질 정도로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차후 축구협회에서도 현재의 프로 축구와 실업축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선수뿐만 아니라 프런트, 심판, 지도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축구 맞춤형 매뉴얼을 개발하는 작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스포츠현장에서 윤리적 행위의 실천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스포츠윤리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스포츠선수의 윤리교육이 강화되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각 종목의 시도별 연맹 및 체육회, 중앙 종목 단체,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다수의 기관에서 동일한 주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선수의 입장에서 교육의 피로도만 높일 뿐 효과성은 미비할 수 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윤리적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모의훈련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축구협회에서는 축구선수들의 윤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체제마련을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축구선수의 윤리적 갈등 경험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10인의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축구선수가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 경험은 1) 지도자의 부당한 요구상황의 갈등 경험, 2) 선배의 부당한 요구상황의 갈등 경험, 3) 공동체와 개인 간의 갈등 경험, 4) 경기 운영에서의 갈등 경험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와 같은 갈등 상황에 선수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한 결과, 1)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 대처, 2) 의도치 않은 온정주의적 대처, 3) 개인보다는 팀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적 대처, 4) 결과를 우선시하는 결과론적 대처로 나타났다. 셋째, 축구선수의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지도자와 선수간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2) 선후배간 관계 개선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3) 윤리적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윤리적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 4) 프로축구와 실업축구의 특성을 이해하는 맞춤형 스포츠윤리교육 및 윤리적 갈등 상황 해결 훈련을 강화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자 프로축구, 여자 실업축구 선수의 윤리적 갈등의 사례와 대처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차후 스포츠현장에서의 윤리적 실천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역으로 활동중인 남자 프로축구선수 5인, 여자 실업축구선수

5인, 총 10인으로 제한된 축구선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질적사례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축구선수가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축구선수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갈등과 의사결정을 살펴보았으며, 차후 다른 구기 종목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갈등을 분석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가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갈등 및 윤리적 의사결정 연구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동욱(2021.11.17). **전현직 # 사령탑 대결...벤투는 활짝·아드보카트는 울상**. 노컷뉴스.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79&aid=0003575738>
- 김문옥(2017).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갈등 경험**.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김범준(2022). 단체종목 운동선수들의 팀 커뮤니케이션, 팀 분위기, 훈련몰입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20(1), 595-605.
- 김아름(2021). **레비나스의 타자윤리와 축구의 도덕적 가치 탐색**.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김현수, 김동규(2012). 스포츠 팔로워십의 가치론적 정초. **한국체육철학회**, 20(4), 121-141.
- 명재용, 홍성택(2020). 축구지도자의 전문성 구성요인 및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8(1), 583-600.
- 박경수, 장혜경(2013). 장애인 거주시설 실천가의 인권 딜레마 사례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2, 249-272.
- 서상철(2008). **고등부 축구선수의 집단응집력, 집단효능감, 팀성공률, 선수만족간 구조적 관계**. 서남대학교 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 소영진(2015). 딜레마 이론, 그 의미와 과제. **한국행정논집**, 27(1), 23-45.
- 오용수(2003). 국가대표선수들의 갈등의 원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7(2), 15-28.
- 오용수, 문선호(2008). 대학생 운동선수의 대인간 갈등 유형 측정 질문지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 1053-1062.
- 이영직, 임다연(2021). 유소년 엘리트 야구선수와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요인 탐색. **스포츠사이언스**, 39(3), 117-127.
- 이재호(2022.04.25). **女 고교축구서 8분간 'NO 공격-수비' 촌극**. 그 이유와 입장은? 스포츠한국. <https://sports.v.daum.net/v/20220425054007865>
- 임다연, 박성주(2021). 스포츠선수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환경적 특성. **체육과학연구**, 32(1), 85-96.

-
- 임변장(2006).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同和文化社.
- 조성민(2007). 도덕 판단의 준거와 정당화 과정. **윤리철학교육**, 8, 2-28
- 허라금(2001). 도덕적 갈등과 다원주의. **철학**, 68, 257-283
- 허미화 역. 1997. **질적사례연구법**. Sharan B. Merriam,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양서원.
- 홍수정(2015). **보육교사의 부모관계에서의 윤리적 갈등 경험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Kadushin G., Egan, m. (2001). Ethical dilemmas in home health care: a social work perspective. *Health Social work*, 28(3), 136-149.
- Reamer, F.(1993). Ethical dilemmas in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28(1),31-35
- Reich, S. M. (2010).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n my space and facebook: A mixed methods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6), 688-705.
- Simon. F. B.(2010). **축구의 미학:세계적 석학들 '축구' 를 논하다**(박현용 역). 서울: 초록물고기. (원서 2009년 발행)